

신안군 세계조개박물관 '공립 1종 전문박물관' 등록

전세계 1만1000여점 조개·고동 표본 등 전시 학예사 등 전문인력 배치·내부 시설물 보완

신안군은 세계조개박물관이 공립 1종 전문박물관으로 공식 등록됐다고 15일 밝혔다.

천사대교 끝자락 자든도 해변에 건립된 세계조개박물관은 975㎡(135평)의 백합조개를 닮은 건축물에 전 세계 1만1000여 점의 조개·고동 표본과 아름다운 조개 공예작품이 전시된 문화예술의 공간으로 조성됐다.

지난 8월 세계조개박물관 개관 이후 학예사 등 전문인력을 배치하고 내부 시설물을 보완해 '박물관 및 미술

관 진흥법'에 따라 '1종 전문박물관'으로 공식 등록을 마쳤다.

전 지역이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인 신안군은 이번 세계조개박물관의 공립박물관 등록을 계기로 해양생태계와 관련된 다양한 교육 및 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해 해양환경 보호의 거점으로 성장시켜 나갈 계획이다.

군이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인 '1도(島) 1뮤지엄' 아트프로젝트는 1400여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24개의 뮤지엄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세계화석공

물박물관 등 8개소가 완공됐다.

지난 5월 저널미술관이 신안군 1호 공립미술관으로 등록되는데 이어 세계조개박물관이 1호 공립박물관으로 등록됨에 따라 '1도(島) 1뮤지엄' 아트프로젝트는 더욱 탄력을 받아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세계조개박물관은 기증자 등 수많은 이들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곳"이라며 "앞으로 공립박물관으로서 전시는 물론 문화예술과 해양생태계 평생교육의 거점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1004뮤지엄파크에서는 2021년 1월 1일부터 조개박물관의 박물관 등록을 기념해 유료 관람객 1004명에게 기념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조개박물관이 위치한 1004뮤지엄파크는 50ha(축구장 70개 면적)의 면적에 자연과 예술이 어우러진 공간으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속에

서도 개관 이후 1만5000여 명의 관람객이 방문하는 대표적인 '인택트 관광지'로 각광받고 있다.

기동취재본부

영광군, 농촌진흥사업 종합평가 '최우수상'

영광군은 농촌진흥청 주관으로 실시한 '2020년 농촌진흥사업 종합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였다고 밝혔다.

농촌진흥청에서는 매년 시군농업기술센터를 대상으로 농촌진흥사업의 성과 확산과 활성화에 기여한 우수 지방농촌진흥기관을 선발하기 위해 정부합동평가 지표실적, 기술보급사업 종합 만족도 등 10개 항목을 종합평가하여 연말 시상식을 실시하고 있다.

영광군농업기술센터는 신기술 보급 및 확산, 청년 농업인 및 지역특화작목 육성, 농산물 가공사업 추진, 농기계 임대사업 추진 등 각 분야에서 크게 우수한 성과를 거둬 수상의 영예를 안았으며,

올해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전국 1위 선정, 전라남도 귀농·귀촌 업무 종합평가 우수상 수상 등 각 분야에서 고된 성과를 달성한 바가 있다.

영광=서희권 기자



영암 '월출산 아트 브릿지' 조감도. (사진=영암군 제공)

"영암의 과거와 현재를 담다" 공공미술 프로젝트 진행 눈길

영암군의 과거와 현재를 담은 '공공미술 프로젝트'가 진행돼 눈길을 끌고 있다.

영암군은 영암읍과 군서면 왕인박사유적지에 공공미술 프로젝트 '리블리 퍼블릭' 작품을 본격 설치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전남도가 주최하고 군이 주관하는 이번 프로젝트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술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업에는 공모를 통해 월출미술인회 1개팀이 선정됐으며, 지역 미술인 37명이 참여하고 있다.

영암 왕인박사유적지 일원에 설치되는 '아트 브릿지'는 영암의 대표적 명산인 월출산의 이미지를 형상화해 직접 작품 속을 거닐 수 있는 놀이공간으로 꾸몄다.

참여작가와 주민들이 함께한 650여

개의 영암 스토리를 담은 아트타일 작품으로도 감상하는 등 지역주민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조형물이 제작 설치된다.

또 영암읍 KT&G 주변은 '영암을 담다'란 주제로 기존에 삭막한 외관의 공간이었던 울벽에 영암군의 대표적 상징을 담은 벽화를 조성해 문화와 관광이 함께 공존하는 환경을 만들어가고 있다.

영암의 과거인 도갑사, 왕인박사, 영암의 현재인 월출산 기차랜드와 조선산업, 월출산 및 영암군의 브랜드 슬로건 등이 어우러져 영암의 과거와 현재를 한눈에 볼 수 있게 조성하게 된다.

영암지역 초등학교와 유치원생들의 작품제작 참여를 통해 영암군의 브랜드 슬로건인 '귀의 고장 영암'에 타일 작품을 넣어 모자이크 형식으로 글자를 형상화했다.

영암=조대호 기자

무안군, 암 관리사업 평가대회 '장려상' 세외수입고지서 활용 홍보 등 수검률 향상 노력 인정

무안군은 지난 11일 전라남도가 주최하고 전남지역암센터가 주관한 전남지역 암 관리사업 평가대회에서 국가암검진 분야 장려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전라남도 내 22개 시군의 국가 암 관리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함으로써 비대면 암 관리 추진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군은 이번 평가에서 읍면사무소와 보건지소에 대장암 검진용 채변통을 비치하고 세외수입고지서를 활용한 홍보와 현수막 설치 등 암 검진 수검률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한 점을 인정받았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양한 지역 사회 홍보활동을 통해 군민의 암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무안=이기성 기자

무안군,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추진한다

무안군은 군민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2024년까지 사업비 236억 원(국비 165억 포함)을 투입하여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난 11일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소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하였으며 김산 군수와 김대현 군의회 의장을 비롯한 수탁협약 기관인 K-water 최동호 영·섬유연분부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군은 상수관누수, 녹물발생의 원인이 되는 노후된 상수관망 정비를 통해 우수율을 85% 이상으로 끌어올리고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불투시스템과 유지관리시스템 구축하는 등 상수도 관망 전산화 작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이 완료되면 우수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이 절감되고 누수와 단수사고를 방지하여 군민들의 만족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산 군수는 "이번 상수관로 정비사업으로 주민들의 오랜 숙원을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며 "수도사업에서 기술력과 노하우를 가진 K-water와 협력하여 군민에게 맑은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무안=이기성 기자

함평군,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2년 연속 '최우수기관'

보건의료 사각지대 해소 호평...1320만원 포상금 수상



함평군은 보건복지부 주관 '지방자치단체 건강증진사업 평가'에서 2년 연속 종합부문 최우수기관에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

통합건강증진사업은 건강생활 실천과 만성질환 예방, 취약계층 건강관리를 목적으로 지역 특성과 주민수요

에 맞게 추진하는 사업이다.

보건복지부는 매년 전국 252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전년도에 실시한 각 지역 통합건강증진사업의 운영성과와 우수사례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시상하고 있다.

지난해 함평군은 노인·어린이·여

성 등 맞춤형 통합건강관리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생애주기별 건강수준에 맞는 단계별 프로그램 운영했다.

또한 거동이 불편한 의료취약계층을 위해 찾아가는 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하면서 보건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했다는 호평을 받으며 이번에 보건복지부 기관포상과 함께 1천320만 원의 포상금을 수상했다.

이상의 함평군수는 "생활밀착형 건강관리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한 것이 이번에 2년 연속 최우수기관 선정이라는 좋은 결과로 돌아와 기쁘다"면서, "앞으로도 비대면 건강관리 프로그램 등 주민 수요에 맞는 차별화된 건강증진사업을 개발해 군민 누구나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함평=김광춘 기자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하나의 마음으로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코로나19, 우리가 함께할 때 이겨낼 수 있습니다!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



외출을 자제하고
최대한 집안에 머물러 주세요!



마스크 쓰기, 손씻기 등
개인위생수칙은 준수해 주세요!



악수 등 신체 접촉을 피하고
2m 건강거리를 두어 주세요!

